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PARE ME THE TRUTH

가제 : 차라리 거짓말을 해줘

저자 : C. J. Carver

출판사: -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112,000 words

장르 : 소설



큰 사고로 기억을 잃고 평범하게 살던 남자, 불쑥 나타난 낯선 여자가 되살리려는 그의 과거

한가한 오전 시간, 댄 포레스터는 슈퍼마켓 라면 코너에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열심히 고르고 있다. 길 건너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아내 대신 딸 에이미를 데리고 장을 보는 중이다. 유명 브랜드 라면을 사느냐 조금 저렴한 유사 제품을 사느냐 고민하면서, 댄은 삶이 지금처럼 지루하리만치 평범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슈퍼마켓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댄은 목 뒤로 전해지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마르고 단단한 체형에 바지정장 차림을 한 그 시선의 주인공은 살짝 미소를 띄며 다가와서는, 자신을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소개한다. '같이 훈련을 받았다'는 알 수 없는 말도 하면서, 여자는 댄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댄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5년 전, 댄은 엄청난 사건을 겪고 살아난 이후 해리성 기억상실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처남을 비롯해 댄의 주변 사람들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를 골탕먹이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한다. 담당 의사도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을 잃은 사실을 알고 약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댄은 그런 반응 따위 얼마든지 껄껄 웃어넘길 수 있지만, 지금 슈퍼마켓에 나타난 이 스틸라라는 여자는 왠지 너무나 불쾌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와 이야기들이 희뿌연 안개에 싸인 그의 내면 어딘가를 분명히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가족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남자, 복잡하게 뒤엉킨 세 사람의 과거

스텔라는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는 댄에게 그들이 웨스터 민스터에서 함께 정부 일을 했었고,

자신이 상사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댄은 아내가 보여준 사진에서 예전 상사의 얼굴과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이 여자와 전혀 다른 모습인 걸 기억하기에 모두 거짓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보아하니 스텔라는 에이미도 알고, 그의 배에 남아 있는 큰 상처에 대해서도 알고, 무엇보다도 죽은 아들 루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댄의 가족들이 그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를 속이고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루크가 차에 치어 죽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후 정신을 잃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던 댄은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기엔 너무 멀쩡한 이 여자의 말처럼 정말 정부의 은밀한 일을 수행하던 특별한 존재였던 것일까?

한편 경찰로 일하는 루시는 경찰서로 전화한 어느 십대와 통화를 한다. 냉동고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는 말에, 허무맹랑한 장난 전화겠거니 생각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았다. 인도로 배송될 냉동고에서 극심히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그 시체의 신원은 실종된 어느 소녀로 밝혀지고, 급기야 얼마 후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된다. 연쇄살인범의 소행이 분명해 보이자 루시는 수사망을 좁혀가며 이 살인 사건에 뭔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시작한다. 의사인 그레이스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자신을 빗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는, 엄마가 어떤 고객에게 엄청난 돈을 빌렸으며 그 고객의 부탁으로 돈을 받으러 왔다고 용건을 말한다. 게다가 이 남자는 세상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그레이스의 과거를 들먹이며 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데, 그녀에겐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댄, 루시, 그레이스.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세 사람이 살인과 속임수로 얼룩진 한 그물에서 만나 뒹잉킨다. 평범했던 세 사람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얽힌 관계 속에서 오랜 세월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과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난다.

<저자 소개>

C.J.카버(C.J,Carver)는 데뷔작 《Blood Junction》으로 2001년 ‘영국 범죄소설협회 데뷔작가상(CWA Debut Dagger)’를 수상했다. 이 데뷔 소설은 <퍼블리셔스 위클리>로부터 ‘올해의 미스터리 도서’로도 선정됐다. 이후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여 여러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제목 : GHOST FLEET

가제 : 유령 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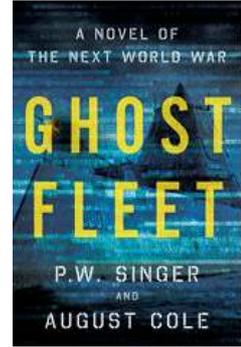
저자 : P. W. Singer, August Cole

출판사: Eamon Dolan/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중국, 미국, 러시아의 또 다른 냉전, 전쟁 전문가들이 사실적으로 그려낸 세계 전쟁

만약 또 한번 국제사회가 전쟁에 휩쓸린다면, 그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 군사 전략가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방위산업 분석가로 활동했던 두 저자는 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그 상상을 소름 끼치도록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냈다. 사소한 인물까지 존재감을 과시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 소설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줄거리 속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다.

가까운 미래, 세계 경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자 중국에서는 먹고 살기 고달파진 도시 노동자들이 일제히 폭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탈공산주의를 외치던 중국 군사 세력은 정부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한다. 이 새 정부는 해외 곳곳에서 펼친 끈질긴 탐사활동 끝에 마리아나 해구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태평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엄청난 양의 자원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이곳이 미국의 영토라는 점이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국의 위성통신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건 영유권과 상관없이 다 가져가겠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시작된 첨예한 대립은 결국 해소되지 못하고, 하와이에 무장한 중국 군인들을 가득 실은 탱크들이 줄줄이 도착한다. 아무 대책 없이 있던 하와이는 거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기뻐하며 '장난감 같은 미국 공군 비행기'가 첨단기술을 그토록 자랑하더니 힘도 제대로 못쓰는 덕분이라며 비웃고, 중국 정부가 마침내 온 세상을 다 가질 때가 왔다고 자축한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결국 일명 '유령 함대'로 불리는, 아주 오래된 중월트급 구축함으로 구성된 해군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양국이 먼저 싸움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며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는 살인과 폭동이 난무하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게 만든 중국의 급작스러운 습격에 분노한 십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그들만의 전투를 시작하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까지 사이버 전쟁에 모집된다. 연쇄살인범들은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그들만의 방식으로 응징을 시작한다.

전통적인 육해공 전투에 사이버 공간, 우주까지 전장이 된 미래 전쟁의 생생한 모습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냉전을 벌인다는 소재로 시작된 소설은 바다와 육지, 하늘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전장이 된 미래의 전쟁 상황을 다양한 무기와 전투 장면들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기척 없이 잠입해 상대를 영탕하는 드론의 공격과 케케묵은 반란군으로 치부되며 무시당하던 미국 참전용사들의 활약이 한데 섞여 이 새로운 전쟁을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아직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과거 전쟁의 교훈과 전쟁의 승패가 최신 무기로 결정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다양한 인물,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인 여러 국가들의 시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로 긴장감은 높아지고, 독자들은 세계 전쟁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참전군인들이 중국의 공격을 받고 '유령 함대'로 불리는 낡은 해군전함을 이끌고 맞서면서 보여주는 실력과 최신 기술을 모두 동원하여 어떻게든 맞서려는 미국의 모습에서 미국의 전쟁 역사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저자 소개>

P. W. 싱어(P. W. Singer)는 미래학자, 기술 컨설턴트, 21세기 전쟁 전문가로 <외교정책>지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포함됐다. 《하이테크 전쟁》(국내 2011년 번역 출간) 등 다수의 책을 발표하여 여러 차례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거스트 콜(August Cole)은 국가안보 분야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방위산업 분야 기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제목 : THE DEVIL'S DETECTIVE

가제 : 악마의 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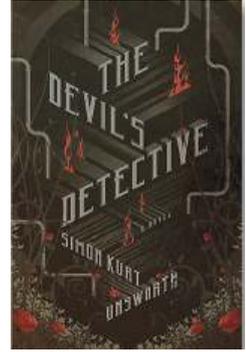
저자 : Simon Kurt Unsworth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5년 3월 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지옥에서도 '범죄'가 일어난다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에서 그 범죄를 조사하는 한 남자

'지옥'하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이 있다. 유행이 펄펄 끓는 솥들이 즐비하고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기괴한 모습의 악마들과 온통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들이 선명한 깊은 불구덩이나 그곳에서 피어 오르는 자욱한 연기 말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의 지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음울하고 불쾌한 분위기의 황폐한 도시를 연상케 하는 이 새로운 지옥에는 색깔이라곤 찾을 수 없고, 어두침침한 절망만 가득한 공간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 죄 지은 인간들과 추악한 천사들, 악마를 길러내는 존재들, 온갖 괴물들이 득실거리며 모퉁이를 돌 때마다 기분 나쁘게 생긴 악마들이 다가와 몸에 들러붙어 성가시게 깨물어대는 이 지옥에도 인간 세상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관리하는 '관청'이 존재하고, '정보 요원'으로 불리는 남자 토마스 풀은 그 관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다.

토마스가 하는 일은 지옥 곳곳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폭력 행위와 잔인한 사건들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지옥이다 보니 사건은 끊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만 간다. 피해자니 가해자니 조사를 할 여력도 없다. 그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옥으로 보내진 이상, 맡은 임무를 다 할 뿐이다. 과중한 업무에 찌들어 살던 그의 삶은 어느 날, 천국의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지옥을 방문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지옥과 천국 모두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발생한 것이 시작이었다. 신체가 무참히 훼손되고, 영혼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인간이 천상 세계에 나타난 것이다. 지옥의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된 시체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혼. 지난 몇 백 년 동안 천상 세계에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잔혹한 살인마가 등장했다는 신호였다. 지옥 정부는 누군가 지옥의 규칙에 도전장을 던지고 지옥의 질서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라고 단정짓고, 토마스에게 이 살인마의 실체를 찾아내라는 지시를 내린다.

영혼은 사라지고 잔혹하게 훼손된 채 내버려진 시체들, 지옥에 도전장을 내민 살인마의 정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토마스. 하지만 죽고 죽이는 일이 일상사인 지옥에서 어떻게 살인 사건을 조사한단 말인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곳인데 범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흉측하고 기괴한 시체는 한 구로 끝나지 않았다. 유독 젊은 사람만 골라 도저히 눈뜨

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을 훼손시키고 영혼은 흔적도 없이 싹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토마스는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가며 살인마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어두운 음모의 중심에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

기발한 상상력과 워트로 사후세계를 참신하게 묘사한 소설 속 지옥은 우리의 악몽 속에 등장하는 어느 끔찍한 장소들과 놀랍도록 닮은 구석이 많아, 낯설게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현실감을 더하고 그래서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옛 기억을 모두 잃어버려 자신이 왜 지옥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하여 속죄할 길을 찾을 수도 없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토마스 또한 지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일에 치여 지쳐 있는 일상에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우울하고 차가운 태도로 살아가는 그는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혼이 없는 이상한 시신만 내던져지는 범죄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토마스를 따라가면서, 정보를 정리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보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살던 그의 과거 이야기도 서서히 드러난다. 재미와 긴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사이먼 커트 언스워스(Simon Kurt Unsworth)는 영국 컴브리아의 시골 마을에 살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편의 단편을 써서 《Quiet Houses》라는 모음집으로 발표했다. 위 소설은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제목 : MY LAST CONTINENT

가제 : 나의 마지막 대륙

저자 : Midge Raymond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미정

분량 : 298 페이지

장르 : 소설



머나먼 남극 대륙, 지구 온난화의 그늘이 엄습한 곳에서 펭귄을 돌보며 살아가는 과학자들

지구상에서 다른 대륙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꼽히는 남극. 1990년대만 해도 남극 여행을 평생 소원으로 꿈꾸다 남극 땅을 밟은 방문객 숫자가 6,00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한 해 약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남극은 아주 사소한 실수나 문제도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다. 이 소설은 남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물들, 그들 각자가 안고 있는 삶의 고통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남극 펭귄 사업’을 수행 중인 과학자 뎀 가드너. 마흔 안팎인 그녀는 빙하가 녹아 남극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계절이면 작은 크루즈선 ‘코모란트’ 호에서 부유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 다른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남극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면 돈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직업이었다. 뎀은 펭귄 보호 사업을 벌이면서 어데일리 펭귄이며 턱끈 펭귄 등 이 작고 귀여운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죽은 개체의 숫자, 깨진 알의 숫자 등을 기록하면서 펭귄들의 생존을 돕고 있다. 배에 오르는 승객들은 90 퍼센트가 뱃멀미에 고통스러워 하며 선실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어서 크게 힘든 일은 없었다.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손님들은 결혼은 했냐, 아이는 있냐, 남극 얼음 위에서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어떻게 사냐, 혹독한 추위는 어떻게 견디냐고 캐묻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면 뎀은 최대한 미소를 유지하면서 남극의 탐사 역사와 펭귄 서식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지구상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남극. 기상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남극에 코모란트 호처럼 작은 배만 방문하는 건 아니다. 남극의 생태계 문제 따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초대형 선박들도 많이 드나든다. ‘오스트랄리’ 호도 바로 그런 거대한 배 중 하나로, 주변 환경에 상관 없이 계속 남쪽으로 무리하게 향해하며 위험을 자초한다. 결국 모두의 우려대로 오스트랄리 호는 바다 한복판에서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끔찍한 상황에서 뎀에게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진다. 그 배에, 과거 오랫동안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켈러 설리반이 타고 있었다는 소식이었다.

자연을 무시하는 인간의 무지함, 남극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와 사랑의 기억

소설은 사고가 난 시점부터 시간을 거슬러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뎀이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동물 중에서도 조류 특히 펭귄을 온 인생을 걸고 사랑하게 된 이야기, 켈러와 함께 지난 시간들을 보여준다. 뎀은 아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연락하며 지내던 켈러와 자신의 관계가 끊임없이 변하는 바다 환경에 따라 서식지를 유지하고 적응하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는 펭귄들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냥 흐름에 맡겨줘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켈러는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서 고통에 빠져 살아야 했고, 그러다 남극에서 위안을 찾게 된다. 그것이 그가 오스트랄리 호에 오른 이유였다. ‘세상의 끝자락,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남극에서 다시 가까운 거리에 함께 하게 된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떤 곳을 향해 흘러갈까? 작가는 펭귄과 사람이 각각 서로에게 순간적으로 끌리는 순간과 돌을 하나로 엮어 주는 요소들, 그리고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독자는 지구상 생물체의 하나일 뿐인 인간의 나약함과 다른 동물들과의 공통점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된다. 더불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친 지구 온난화와 그 심각한 영향,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다.

<저자 소개>

미지 레이먼드(Midge Raymond)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글쓰기를 가르치던 작가이자 교수로 현재도 보스턴과 시애틀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단편 선집인 《Forgetting English》은 ‘스포칸 상(Spokane Prize)’ 단편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Everyday Writing: Tips and Prompts to Fit Your Regularly Scheduled Life》, 《Everyday Book Marketing: Promotion Ideas to Fit Your Regularly Scheduled Life》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NON-FICTION

제목 : PARENTING FOR THE DIGITAL AGE

가제 : 디지털 시대, 아이 제대로 키우는 법

저자 : Bill Ratner

출판사: Familius

발행일: 2014년 11월 4일

분량 : 190 페이지

장르 : 자녀교육



수많은 디지털 장비와 쏟아지는 미디어 프로그램, 이 대혼란 속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법

요즘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태블릿 PC, 컴퓨터, 게임기 등 아이들이 하룻동안 얼굴을 마주하는 '화면'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도 너무 길다는 사실이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기기 다루는 법을 익히고 소파에 죽치고 앉아 화면을 응시하는 아이들. 이런 환경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디지털이 세상을 점령하기 이전 세대가 자란 환경과 완전히 다른 이런 생활환경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도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열네 살부터 광고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인물이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우 중 한 사람인 저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교육자의 입장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속속들이 파헤치고 그 환경 속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역할을 제안한다.

넘쳐나는 디지털 기기, 수없이 몰아치는 미디어의 공격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영향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전략도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친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방법부터 터득하는 것이며, 이로써 아이들은 행복하고 남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과 텔레비전을 비롯해 새로운 대중매체의 중심에서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토대로, 현 시대 부모와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설명하고 TV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각종 소프트웨어,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파헤친다. 디지털 시대에 착실히 준비를 갖춘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다.

<목차>

1부 - 문제점

- 아빠, TV가 안 나와
- 우리는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 형제나 다름없는 라디오
- 신화적 인물, 베티 크로커를 만나다
- 아버지의 위대한 연설
- 바비
- TV 만화영화의 정점: 지.아이.조 연대기
- TV 광고의 세계
- 미디어의 강렬한 유혹
- 사이버 공간의 매너
- 자, 이쯤에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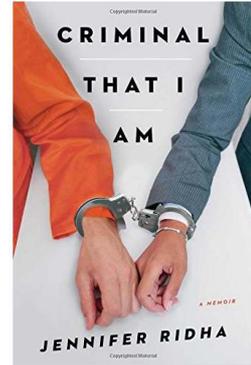
2부 - 해결책

- 육아 분담부터 시작하자
- TV 만화영화 스캔들 - 미디어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
- 심리학자가 말하길
-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더 모스'
- 가족 대화
- 결론

<저자 소개>

빌 래트너(Bill Ratner)는 TV 만화영화 '지.아이.조(G.I.joe)'를 비롯해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영화에서 성우로 활동 중이다. 미국의 '전국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서 스토리텔러 전문가로 인정 받았으며, 단편과 에세이, 각본을 쓰기도 했다. 현재 미국 전역 코미디 클럽, 극장, 학교에서 공연과 강연을 하고 있다.

제목 : CRIMINAL THAT I AM
가제 : 나는 왜 범죄자를 자처했나
저자 : Jennifer Ridha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15년 5월 1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유명 영화배우의 변호인이 된 젊고 재능 있는 여성 변호인, 스스로의 의지로 범죄자가 된 사연

마약 밀매 혐의로 붙잡힌 영화배우 카메론 더글라스의 변호인으로 지명된 유능한 여성이 그를 변호하다 범죄자가 되어 버린 솔직한 사연을 솔직하게 고백한 책을 발표했다. 저자는 유명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들을 감옥에 수감된 상태로 처음 만나 그와 사랑에 빠졌고,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 자처해서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 책에서 털어 놓는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마약 중독자, 저자는 이런 인물을 변호하는 일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만큼 법조계 경력이 많은 변호사 자격으로 카메론 더글라스를 처음 만났다. 그는 연방 마약거래법 위반으로 보안 체계가 가장 엄격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커크 더글라스, 마이클 더글라스에 이어 더글라스 집안에서 3대째 배우로 활동 중이던 그는 집안의 그 막강한 영향력 덕분에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교도소로 옮겨졌다. 언론은 배우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에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내었고, 저자는 변호인으로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접견실에서 만난 그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저자는 그가 불안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꼭 먹어야 하는 약을 교도소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을 거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견디다 못한 카메론 더글라스는 그녀에게 몰래 약을 들여와달라고 요청하고, 저자는 그 일이 분명 범죄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요청에 응한다. 자신이 처방 받은 신경안정제를 밀반입하여 그에게 전달한 것이다. 카메론은 그 약을 건네 받아 교도소 동료들과 나누어 복용했고, 결국 저자의 위법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다.

저자는 카메론 더글라스를 변호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것도 사실이고 그 위법 행위에 그러한 감정이 개입된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법체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았고, 그 부당함 때문에 피해 받는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고 고백한다. 자칫 의뢰인과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 변호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법률과 처벌 제도를 날카롭게 파헤친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사실들이 가득하다.

법조계 내부 인물에서 외부 인물로, 변호인에서 범죄자로 그 모든 변화를 견디며 긴 시간을 지나온 저자는 사람들이 살면서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관한 깊은 고찰을 자학적인 유머를 섞어 맛깔 나게 이야기한다. 감정적으로, 법적으로 한껏 꼬여버린 자신의 삶과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저 없이 집행되는 법의 단면,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마저 지켜지지 않는 부당성을 날카롭게 꼬집는 그녀의 이야기는 충분한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목차>

- 1장: 딱 걸리다
- 2장: 공모자와의 만남
- 3장: 카우보이들의 지역으로
- 4장: 공모가 시작되다
- 5장: 심판
- 6장: 법정에서 봅시다
- 7장: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8장: 분노 속에 바그다드로
- 9장: 브라를 입지 않은 나의 모습
- 10장: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일
- 11장: 유감이군요
- 12장: 깨달음, 그리고 석방

<저자 소개>

제니퍼 리다(Jennifer Ridha)는 콜롬비아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 일하면서 뉴욕 남부지법 소속 형사피고인으로 일하고 있다.

제목 : 100 THINGS THEY DON'T WANT YOU TO KNOW

가제 : 당신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100가지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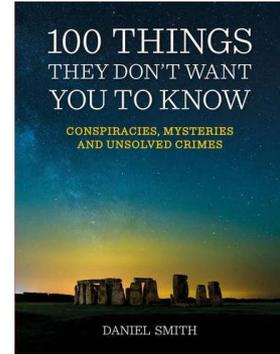
저자 : Daniel Smith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5년 9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교양



미해결 범죄, 정치적 사회적 각종 음모들, 전 세계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샅샅이 파헤치다

1966년과 1967년에 웨스트버지니아 어느 농가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알려진 날개 달린 괴상한 존재, ‘모스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딸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모든 부부에 이어, 수십 년 뒤 부부의 두 아이들까지 죽은 채로 발견된 모든 가의 끔찍한 죽음은 대체 왜 일어난 일일까? 리 하비 오스월드가 정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을까? ‘외계 지적생명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대학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와우(WOW) 신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베스트셀러 《평생 결코 가보지 않을 장소 100곳(100 Places You Will Never Visit)》을 써서 화제를 낳았던 저자가 이번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실종 사건, 미해결 범죄와 음모 이론 100가지를 엄선하여 책 한 권에 모았다. 해석할 수 없는 표식들, 바다에서 사라진 존재들, 전설처럼 전해지는 신화, 믿기 힘든 우연, UFO, 실종자들, 기이한 자연 현상까지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일들이 저자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미스터리를 파헤치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수수께끼는 풀기 어렵고 깊이 감춰져 있을수록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풀고 싶은 의욕도 더 샘솟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미스터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 정보 공개니 투명성이니 하는 용어가 정치계나 상업계의 표어처럼 사용되는 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비밀이나 수수께끼는 들어설 자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대중의 시선에서 원가를 감추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한 쪽에서는 그 감춰진 비밀을 어떻게든 찾아서 세상에 폭로하려는 인터넷 전사들이 존재한다.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려는 유명인사들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는 유명인사들이 공존하는 세상. 이제 미스터리라든가 개념은 들어설 곳이 없어진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점점 더 가까이 연결될수록 그 사이에 ‘빠진 고리’는 더 쉽게 생긴다.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진실’에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맨 처음 어디에서 시작된 정보인지, 드러난 내용에 속 빠진 진짜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누가 무슨 이유로 그 정보를 제외시켰는지 파악하는 일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되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 믿기 힘든 일들, 신기한 자연 현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100가지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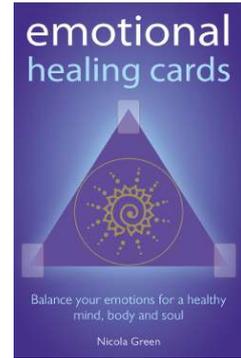
저자는 도무지 진실을 파악하기 힘든 사건들,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골라 이 책에 담았다. 진실과 실체를 둘러싸고 두 가지 이상의 추정이나 이론이 격렬히 대립해 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다. 그 중에는 진실을 파악하려는 순수한 노력보다는 고의적인 속임수와 혼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더해지면서 처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사건들이 많다.

1947년 로스앤젤리스에서 허리가 잘린 시체가 발견된 일명 '블랙 달리아' 사건, 영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를 둘러싼 의혹, 중국 신장성에서 발견된 미라들을 둘러싼 고대 중국인과 서구 사람들에 관한 수수께끼, 냉전 시대 소련 우주비행사들의 실종에 관한 음모론, 예수의 장례식에 사용된 수의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의의 비밀, 텍사스 주 말파 지역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빛 '말파광'까지, 저자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온 신기한 사건과 은밀한 내막을 시원하게 파헤쳐 독자들 앞에 제시한다.

<저자 소개>

대니얼 스미스(Daniel Smith)는 《설록 흠즈처럼 생각하기》(국내 2013년 번역 출간) 등 50권 이상의 저서를 발표한 작가로 《100 Places You Will Never Visit》는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 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영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정학적 가이드북 'The Statesman's Yearbook' 제작에도 오래 전부터 참여하고 있다.

제목 : EMOTIONAL HEALING CARDS
가제 : 마음을 치유하는 카드
저자 : Nicola Green
출판사: Connections Book Publishing Limited
발행일: 2014년
분량 : 96 페이지
장르 : 취미



마음 속 깊이 막혀 있는 장애물, 부정적인 기분을 해소해주는 특별한 카드 40장과 활용법

감정을 다스리고 부정적인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한 책이 등장했다. ‘치유의 삼각형’으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카드에 그려진 이미지를 통해 나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여 감정과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심리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처럼 감정 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카드 한 벌은 감정 카드 19종, 신체 카드 5종, 에너지 카드 12종, 계절 카드 4종으로 구성되며, 각각 현재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고,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디에서 균형을 찾을 것인지 찾는 데 활용된다. 4장의 계절 카드는 감정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억눌린 감정을 자유롭게 해소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면, 그 감정을 힘과 창의성을 얻는 원천으로 활용하고 대인관계나 건강, 직장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찾아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몸과 마음,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목차>

1. 감정이란

- 감정과 기분 / 감정과 신체 / 감정과 생각 / 감정을 촉발시키는 요소
말과 마차: 감정의 고삐는 꼭 죄어야만 할까? / 압력 밸브: 감정은 꼭 표출해야만 할까?
감정과 성격 / 감정 자동조절장치

2. 감정을 다루는 법

- 나의 감정 이해하기 / 감정을 꾸준히 기록하자 / 신속 정확한 해결법 / 마음 챙김과 감정
나의 감정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법 / 상상 속의 현자 / 창의적으로 시각화하기
유머의 활용 / 억눌린 감정 다루는 법 / 치유로 가는 길

3. 감정의 범위

- 감정의 분류: 죄책감 / 분노 / 좌절 / 조급함 / 취약성 / 불안 / 정신적 외상
질투 / 사랑 / 슬픔 / 밀실공포 / 절망 / 낮은 자존감 / 혼란

단절감 / 우울 / 중독 / 자부심 / 시기

4. 카드 활용법

- 카드 소개 / 카드 배치하기 / 특정한 배치에 담긴 의미 / 감정 카드 해석 법
감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명상하기 / 신체 카드 해석 법 / 에너지 카드 해석 법
경험 카드 활용법

5. 카드 추가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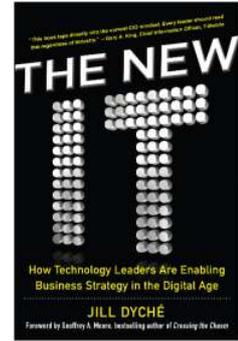
6. 친구, 파트너와 함께 활용하는 법

7. 수정구슬 활용법

<저자 소개>

니콜라 그린(Nicola Green)은 상담과 최면요법,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기술을 공부하고 최면요법사로 활동 중이다. 워크숍과 고객과의 개인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정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제목 : THE NEW IT
가제 : 새로운 IT
저자 : Jill Dyche
출판사: McGraw-Hill
발행일: 2015년 1월 26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기술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회사 실정에 맞는 IT의 역할과 활용도 변화로 혁신에 성공하는 법

현재 정보통신(IT) 업계는 지금까지 이룩한 사업 성공의 기반과 핵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시에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거세지는 혁신의 압력을 반영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회사 경영진은 어떻게든 수익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속도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느려터진 변화에 금새 지쳐버리기 일쑤다. 디지털 시대는 IT 업계에게 희망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준 듯한 형국이다.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이자 강연과 블로그를 통해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대부분의 IT 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상담을 해 온 저자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이 불안정한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개별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제공되는 기술들, 새로운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시대에 불안만 커지는 IT 분야 업체들의 대표, 각 회사의 IT 업무 담당자를 위해 각자 회사 실정에 맞게 IT 기술의 올바른 역할을 찾고 강화하는 해법을 소개한다.

책에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회사 전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IT 활용 방식과 회사 업무에서 IT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현재 자신의 회사나 부서에서 활용하는 IT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각 회사의 고유한 문화와 강점에 맞춰 IT를 재편성하고, 회사 혁신과 개별 직원의 재능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T가 회사에서 보다 굳건한 역할을 수행하여 가장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이 끌어가는 방법들이 하나하나 소개된다. 도요타(Toyota), 머크(Merck),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 유니언 बैं크(Union Bank) 등 실제로 IT의 변화를 모색한 사례에 관한 연구와 성공 비결도 함께 제시된다.

<목차>

1부 - 정보통신(IT)의 문제, 그 실체와 인식

1. IT,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2. IT 리더들의 정체성 위기
3. 첫 번째 자체평가: 문제의 범위 파악

2부 - IT 변화를 위한 종합 해결책

4. 한 눈에 들어오는 전략
5. 운영방식: IT 포트폴리오 새로 마련하기
6. IT 기술의 체계적인 조직 모형, IT 서비스 공급망
7. 혁신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변화, 그 외 힘겨운 전투
8. 두 번째 자체평가: 변화를 향한 준비태세 점검

3부 - 새로운 IT에 맞는 리더십

9. 재능 전쟁 속에서 싸워 이기는 법
10. 내 자리 찾아서 보존하는 법
11. 세 번째 자체평가: 나의 리더십은?

<저자 소개>

질 디시(Jill Dyché)는 'Best Practices for SAS'의 부대표로 IT 기술 변화에 관한 강연과 집필 활동, 블로그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CRM Handbook》(국내 2003년 번역 출간)을 비롯해 IT의 사업적 가치에 관한 저서를 여러 편 발표했다.

제목 : CONRAN ON COLOUR
가제 : 테렌스 콘란의 색깔 이야기
저자 : Terence Conran
출판사: Conran
발행일: 2015년 5월 5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미술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색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서 ,
색은 디자인과 장식에서 미묘함, 암시, 강렬한 느낌, 활기 등 각양각색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일 요소다. 집안을 멋지게 꾸미고 싶은 사람에게는 냄비나 주방도구부터 벽에 칠할 페인트, 타일까지 수많은 색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자주 맞이한다. 하지만 다채로운 색은 매혹적이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를 선택하자니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많은 색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과감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세계 일류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 인정 받는 저자는 이 책에서 생동감 넘치고 동적인 이 ‘색’이라는 요소로 집을 꾸미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연, 패션, 길거리에 상점들이 늘어선 시장, 예술의 세계까지 광범위한 곳을 색의 원천으로 삼아, 색에 관한 개개인의 기호와 아이디어를 실용적인 전략으로 바꾸어 집안에 들이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색의 강력한 영향력은 색이 없는 곳에서도 색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사실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우리의 삶과 정신에 색깔처럼 강렬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요소는 없다. 색이 가진 이 고유한 힘과 에너지는 수많은 색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기억에 남는 장소나 좋아하는 물건에 관한 기억이 반영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의미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텃밭이나 정원, 야생화, 환한 태양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등 때로는 아기자기하게, 때로는 광활하게 펼쳐지는 자연의 화려하고 생생한 색깔들, 화가, 사진작가, 패션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등 색을 보는 눈이 유난히 뛰어나고 남다른 사람들이 작품으로 보여주는 색의 색다른 느낌들, 현대 사회의 발전된 기술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곳에서 얻어낸 색들까지, 저자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색의 아이디어를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더불어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한 인테리어의 예시들로 디자인과 색의 조화가 얼마나 신선하고 다채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섬세할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실용적인 조언, 독자들의 영감을 깨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1부 - 색에 대하여

색의 과학 / 색깔 이론 / 빛과 색 / 색을 활용한 공간 업그레이드 / 강조 / 중심점 만들기
배경색 / 다양한 종류의 색 활용 계획 / 표면과 마무리 / 페인트와 실용성 / 기성품 활용하기

2부 - 하나씩 살펴보는 색깔

파란색 / 주황색 / 녹색 / 빨간색 / 노란색 / 자연스러운 색 / 무채색



<저자 소개>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은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레스토랑,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에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체인형 소매점 'Habitat'을 설립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 여덟 개 도시에서 음식점과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다.